

### 제 3 장: 20 세기 초반기

1904

10월 31일 - 웨일즈(Wales), 레이저(Loughor) (이븐 로버츠(Evan Roberts))

이른 20세기 초에는 선례없는 부흥이 예고 되었습니다. 전세계에서 시작된 수천 개의 기도모임바람이 전혀 예측하지 못한 부흥을 몰고 온 것입니다. 1904년~1905년에 있었던 웨일부흥(Welsh Revival)은 그 가운데서 가장 능력 있고 감동적으로 퍼져나간 사례였습니다. 이 부흥은 전세계를 강타하였습니다. 부흥의 소식이 전파되면서 선교사들은 대영제국(Great Britain)에서 선교를 위해 해외로 나갔고 부흥을 위한 열렬한 기도운동 또한 전 세계적으로 전개되었습니다. 그러한 놀라운 부흥은 인도, 한국, 중국을 감동시켰고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일본에서도 전국을 휘저어 놓았습니다. 특별히,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와 태평양 연안 섬나라들에게는 신선하고 새로운 영적각성운동을 유도하는 불씨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1904년 10월부터 몇 달이 안되어 웨일즈(Wales)에 있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죄를 뉘우쳤고, 일년 동안 10만 명의 사람들이 회개의 눈물로 주님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5년이 지난 후에는 8만 명의 회심자들이 하나님을 계속 믿으며 그 사회 공동체는 말씀 안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부흥기간 동안 범죄가 급속히 줄어 들었고 어떤 재판관들은 재판 건수가 줄어들어 사직을 하기도 했습니다. 술 취한 사람들이 사라지면서 술집들이 부도를 내고 문을 닫았습니다. 많은 광부들도 죄를 뉘우쳤습니다. 그리하여 광산으로부터 수송하는 석탄이 광부들의 정직한 마음가짐으로 납득이 가지 않을 정도의 생산량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조셉詹킨스(Joseph Jenkins)목사는 웨일즈(Wales)의 서해안 카디겐(Cardigan)해변의 새 부두에 위치한 감리교회에서 목회를 하었는데, 그 당시 부흥을 강하게 체험하여 영적인 열기에 달아오른 젊은이들의 뜨거운 삶의 간증 집회들을 인도하면서 그 지역사회에 큰 영적인 변화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장로교 복음전도자인 셋 조수아(Seth Joshua)는 성령의 주목할 만한 움직임을 맞보고자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9월 18일 일요일에 그는 “자신이 전에 보지못한 성령의 강한 능력이 지금 이 사람들 가운데 생생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그리하여 집회는 늦은 밤에야 끝이 났다” 라고 전했습니다. 그의 일기에는 계속해서 그 사건에 대해 잘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9월 19일 월요일, 젊은 사람들은 측량할 수 없을 정도의 축복을 받은 가운데... 부흥은 더 능력있게 나타났다. 그들은 기도와 찬양과 간증과 권고의 말을 주고 받았다.

9월 20일 화요일, 나는 새벽 1시 무렵까지 건물을 떠날 수 없었다. 나는 몇 번이고 예배를 마치려 했지만 그것(부흥)은 인간적인 역제를 무시하고 계속 진행되었다.

9월 21일 수요일, 나는 어떤 사실을 깨달았다. 몇몇의 영혼들은... 술고래나 범죄자들이 아니고

명백한 교회의 성도들이었지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원에 접목되어 있지 않았다... 하지만 얼마 후 감격스러운 기쁨이 흘러 넘쳤다.

9월 22일 목요일, 우리는 또 다른 주목 할만한 집회를 가졌다. 많은 무리들이 계속해서 주님 앞으로 나와 믿음의 확실한 보장을 위해 간구의 기도를 하였다.

9월 23일 금요일, 내 생각에 40명의 회심자들이 이번 주에 이 자리를 채웠다. 그리고 확신있는 믿음을 간직하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여 확실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오로(Orr) 1973, 3).

셋 죠수아(Seth Joshua)가 뉴카슬 임리(Newcastle Emlyn)에서 다른 집회를 개최할 때 메터디스트(Methodist)학원의 학생들이 참석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이븐 로버츠(Even Roberts)의 같은 방 친구인 시드니 이븐스(Sidney Evans)도 있었는데 그는 나중에 이븐 로버츠(Even Roberts)에게 집회소식을 감동적으로 전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븐 로버츠(Even Roberts)를 포함한 학생들이 브래너치(Blaenannerch)에서 개최된 죠수아(Joshua)의 다음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셋 죠수아(Seth Joshua)는 9월 29일 목요일에 웨일스(Welsh)에서 “주님! 우리를 굴복시켜 주옵소서” 라고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아침식사 바로 전인 7시에 집회를 마쳤습니다.

이븐 로버츠(Even Roberts)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굴복시켜 주옵소서” 라는 말을 통해 성령이 역사하였다고 믿었습니다. 그런 후 그가 기도하러 나갔을 때 성령이 그에게도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고 영감을 주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굴복시켜 주옵소서”. 집회가 아침 9시에 다시 시작되는 가운데 이븐 로버츠(Even Roberts)는 결국 다른 사람들과 함께 통성으로 간절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는 앞에 있는 의자 위에 두 팔을 얹어놓고 무릎을 꿇고 기도해 몰두할 때 그의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그는 “오, 주여! 나를 굴복시켜 주옵소서, 나를 굴복시켜 주옵소서, 우리를 굴복시켜 주옵소서” 라고 계속 반복하여 울부 짖었습니다 (이븐스(Evans) 1969, 70). 곧, 부흥의 좌우명은 “교회를 굴복시켜 주옵소서, 세상을 구원해 주옵소서”가 되었습니다.

20대의 이븐 로버츠(Even Roberts)가 국내에서 일어나는 부흥을 위한 하나님의 대리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한 친구에게 “나는 내가 10살이나 11살 때부터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왔었다”고 편지를 썼습니다. “나는 부흥에 관한 책을 읽거나 이야기 하느라고 밤새도록 깨어 있을 때가 많았고... 그것은 성령님이 나에게 부흥을 마음속 깊이 사모할 수 있게 역사하는 교제의 순간들이었다” (오로(Orr) 1973, 4).

10대의 어린 나이로 일요일 예배에 참석했고 월요일의 기도모임, 화요일의 청년회모임, 수요일의 수요집회, 목요일의 절제모임, 금요일 반별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토요일은 밤에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 목욕함으로 쉬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는 1904년 9월 중간 학기에 감리교학원에 입학하였습니다. 그전에 그는 주님과 깊은 만남을 체험하였고 웨일즈(Wales)의 모든 성도들이 하늘나라로 들려 올림받는 비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일 후에 그는 주기적으로 새벽 1시가 되도록 가벼운 잠을 자면서 하나님과 몇 시간씩 대화의 시간을 가졌고 그 다음에 깊은 잠이 들었습니다. 그는 부흥이 웨일즈(Wales) 전국에 휩쓸 것을 깨닫고 결국은 작은 찬양단을 이끌고 전국을 순회하면서 기도와 말씀을

알리는데 전념했습니다.

셋 죠수아(Seth Joshua)의 집회에서 성령의 강한 감동을 체험한 후 그는 집으로 돌아와 특히 젊은 사람들과 친구들에게 큰 도전을 주었습니다. 1904년 어느 10월에 웨일즈(Wales)의 남부 해안지역에 위치한 그의 고향인 레이거(Loughor)마을에 기차로 도착한 이븐 로버츠(Even Roberts)는 매주 월요일 밤에 있었던 기도모임 후에 그곳에 모인 17명의 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성령이 2시간 동안 진행되는 그 모임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강하게 임하여 모두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구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일 후에 매일 밤 급속도로 증가하는 사람들에게 이븐(Even)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말에는 교회가 모인 성도들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자정쯤 되었을 때 성도들이 눈물과 함께 성령에 감격되어 있는 것을 목격한 이븐 로버츠(Even Roberts)는 그 주일 밤의 영적인 순간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람들이 미술전시관에서 내려와 서로 가까이 앉았다. 나는 간절히 말하기를, “지금 우리는 이 순간 성령이 임하실 것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성령이 오지 않을까? 혹은 역사 할 희망이 없어 라는 부정적인 것보다 그가 확실히 우리들과 함께 하실 것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호소하였다. 그런 다음에 나는 성경에 나와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을 읽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였다. (잊지 마세요, 저는 지금 성령님의 인도로 모든 것을 하고 있으며 오직 그 분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 일 후에 성령은 모든 사람들이 기도해야 한다는 계시의 말씀을 나에게 인식시켜 주었다. “지금 기도하세요, 회개하지도 말고, 찬양하지도 말고, 신앙간증을 나누지도 말고 오직 기도 가운데 진심으로 그 분의 음성을 기다리세요.” 이러한 간절한 기도회가 뜨거워 질 무렵 우리의 기도는 “성령님, 지금 당장 예수의 명을 위해 임하여 주옵소서” 라는 간구와 함께 성령세례의 기도가 이어졌다.

사람들은 단지 앉아서 눈만 감았다. 기도는 나와 함께 시작되었다. 그런 곳에 기도의 불이 한 자리씩 한 자리씩 어느 누구도 제외없이 모두에게 번져나갔다. 어떤 사람은 조용하게 주님과 은혜의 시간을 가졌고 어떤 사람은 큰 소리로 호소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냉정한 목소리로 주님을 찾기도 하였고, 또 어떤이는 온순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의 문을 열었고, 다른 이들은 예배 형식같이 기도하기도 하였고, 눈물로 기도하는 자도 있었고, 땅을 치면서 기도하는 자도 있었으며, 아들, 딸과 함께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하는 자도 있었다. 이 얼마나 놀랄만한 일 입니까! 나는 결코 이런 현상을 예상치 못했다. 나는 그곳이 무언가로 채워지고 있다는 느낌과 함께 어떤 형제들의 애통하는 소리, 흐느껴 우는 소리, 그리고 “오, 사랑하는 주여, 사랑하는 주여, 좋습니다, 좋습니다! 오, 사랑하는 주여, 사랑하는 주여!” 하며 기도가 계속 더 진행되고 있음을 감지하게 되었다. 그 느낌은 더욱 열렬해 졌고 그 기도하던 곳은 더욱더 성령님의 현존하심으로 채워졌다 (듀웰(Duewel) 1995, 190).

많은 교회와 모임들로부터 그를 초대하는 초대장들이 날아 왔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기도와 간증과 찬양을 위해 작은 목회팀과 함께 복음전도활동을 하였습니다. 1904년 11월에는 부흥의 불씨가 웨일즈(Wales)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신문사들은 시민들의 모임들을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1905년 1월 말에 어느 신문은 3개월 동안 7만 명이 죄를 뉘우치고 회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븐 로버츠(Even Roberts)가 아래와 같이 주장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뉘우치게 하였습니다:

1. 당신은 주님께 회개하지 않은 죄가 없어야 합니다.

2. 당신은 주님과 다른 사람들을 의심하는 습관이 없어야 합니다.
3. 당신은 성령님께 신속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4. 당신은 주님을 대중 앞에서 나의 구주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는 성령세례가 부흥의 근본적인 요소라고 믿었고 부흥의 기본적인 현상은 각 개인이 이러한 성령세례를 체험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븐 로버츠(Even Roberts)는 다른 복음전도자들과 함께 웨일시(Welsh)마을들을 순회전도 하면서 때로는 말씀을 전혀 전하지 않고 그냥 앉아 손을 들어 열정적으로 기도만 하기도 하였습니다. 한번은 네이스(Neath)에서 부흥의 역사가 그 지역 모든 교회들 안에서 일어날 때 그는 한 주일 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고 오직 기도에만 전념하였습니다.

교회들은 주님을 영접하는 성도들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부흥의 물결이 퍼져 나가면서 집회들이 밤낮 구분없이 계속 진행되었고, 종종 그 집회들은 자정을 넘어 다음날 새벽까지 계속 되기도 했습니다. 집회의 군중들은 죄의 뉘우침, 회개, 그리고 잘못된 것을 회복하는 등...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열렬하게 기도했고 큰 기쁨으로 예배 드렸습니다. 경찰들의 업무가 줄어들면서 그들도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에 동참하였습니다.

그 뜨거운 성령의 역사는 모든 교회들을 은혜의 부흥으로 사로잡아 새로운 차원의 연합, 기쁨, 담대함, 증인의 용기,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였고, 성도들로 하여금 성령 안에서 뜨거운 사람들이 되게 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불씨를 계속 간직하게 하였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부흥의 절정기인 1904년 11월 20일에 스티븐(Stephen)과 조우지 제프레이(George Jeffreys)형제가 메스터그(Maesteg)에 있는 그들의 본 교회인 웨일시독립군중교회(Welsh Independent Congregational Church)의 예배당(Siloh Chapel)에서 그들의 세속적인 삶을 회개하였습니다. 비록 초기에는 1908년 웨일즈(Wales)에서 나타난 펜타코스트주의(Pentecostalism)와 대립적이었으나 1911년부터 그들도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대영제국(Great Britain)과 해외에서 감동적이고 설득력 있는 복음전도자들이 되어 거대한 무리의 군중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또 수백 명이 병고침의 역사를 체험하였고 수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기적을 목격하였습니다. 그들은 종종 순회여행을 하였고 목회도 함께 하여 많은 교회들을 개척하였습니다. 조우지(George)의 조직적인 사회부흥운동 중에서 버밍햄(Birmingham)에서 있었던 집회에서 만 명의 사람들이 죄를 뉘우치고 회심한 것과 유럽 전역에서 만 4 천명을 회개시킨 능력있는 목회가 눈부신 일부분이 되었고, 그 외에도 스위스(Switzerland)에서 1934년~1936년동안 활동한 업적도 크게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는 나중에 엘림 포스퀘어 알리안스(Elm Foursquare Alliance)라는 엘림 펜타코스트교회(Elm Pentecostal Church)의 설립자와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스티븐(Stephen) 또한 많은 엘림(Elm)교회들을 개척하였고, 독립한 복음전도자로서 영국과 아일랜드(Ireland)에서 새로이 형성된 하나님의 성회(Assemblies of God)와 함께 활동적인 주님의 사역을 감당해 나갔습니다.

1905

6월 30일 - 인도, 맥티(Mukti) (펀디타 레마바이(Pendita Ramabai))

캘커타(Calcutta)대학의 센스크리트(Sanskrit)학자들로부터 ‘펀디타(Pendita)’라는 칭호를 받아 존경받는 라마바이(Ramabai)는 20세기로 접어드는 시기에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7가지 언어를 완전히 습득하였고 마라타이어(Marathi)로 성경을 번역하기도 했으며, 예수의 인생을 포함한 몇 권의 책들도 저술하였습니다. 인도정부는 1989년에 그녀의 업적을 높이 평가하여 범국민적으로 알리고자 기념우표를 발간하여 그녀의 사회적 업적을 전국에 알렸습니다.

라마바이(Ramabai)는 젊은 과부들과 (여자) 고아들을 위해 봄베이(Bombay) 남쪽 위치한 부니(Pune: Poona)라 하는 그녀의 거주지에서- 여러 해 기근이 계속 될 동안에도 부지를 구입해- 그들을 돌봐주는 구제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맥티(Mukti: 구원) 라고 불렀습니다. 1901년에는 무려 2천 명의 고아들과 젊은 과부들을 돌보아 주게 되었고, 1905년 1월부터는 부흥을 소망하며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기 시작했습니다. 부녀자들과 여자아이들로 구성된 약 500 명의 사람들은 하루에 두 번씩 모여 부흥을 위해 간절히 기도모임을 가졌습니다.

그 당시 라마바이(Ramabai)는 인도 동북쪽에서 일어나는 성령운동 소식을 접해듣고, 그녀가 가르치는 여자 대학생들에게- 한 동안 공부하는 것을 그만두고 전도팀을 만들어 마을과 마을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영적인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도전을 주었습니다. 30명의 학생들이 자원하였고 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희망하는 기도를 위해 매일 모임을 가졌습니다.

성령은 1905년 6월 29일에 많은 여학생 가운데 강하게 임재하였습니다. 한 불길기 기도하는 한 여학생을 들어 삼키려는 것을 본 다른 여학생들은 밖으로 뛰어나가 물통에 물을 담아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녀가 화상을 입지않고 별 이상이 없음을 뒤늦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6월 30일에 라마바이(Ramabai)가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강간으로 멸시와 천대를 받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베푸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칠 때, 갑자기 성령이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역사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울면서 큰 목소리로 기도하기 시작하였고 성령세례와 불세례를 받고자 간절히 울부 짖었습니다. 12살 정도의 평범한 여자 어린이 하나가 기쁨이 충만한 모습으로 변화하여 항상 변함없는 웃음과 상큼한 인상을 주는 어린이가 되었습니다. 다른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부흥은 그들의 선교활동을 통해 인근지역으로 급속히 퍼져 나갔습니다. 공립학교의 여가활동 시간들이 춤을 추며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들로 바뀌어 죄뉘우침과 회개로 이어졌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성령세례를 받았고 일부는 방언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성령운동은 더 나아가 복음전도와 사회봉사활동의 열정을 불러 일으키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 동안 알버트 노튼(Albert Norton)선교사는 그 곳을 방문하였습니다. 그곳의 선생님인 미니 아브람스(Minnie Abrams)는 그의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부흥기도모임을 보여주기 위해 노튼(Norton)선교사를 초대

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다음과 같은 감명적인 체험담을 남겼습니다:

일 주일전 나는 맥티(Mukti: 구원)선교회를 방문하였다. 아브람스(Abrams) 선생님이 나에게 약 20명의 여학생들이 기도하는 방에 가고 싶으냐고 질문을 하자 마자 우리는 그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문을 들어서서 나는 한 책상 옆에서 눈을 감고 무릎을 꿇었다. 그 순간, 내 가까이 있는 한 여학생이 영어로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오 주여, 입을 열어 주세요; 오 주여, 입을 열어 주세요; 오 주여, 내 마음을 열어 주세요; 오 주여, 눈을 뜨게 해 주세요! 오 주여, 눈을 뜨게 해 주세요! 오,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 오,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홀로 영광 받으소서!” 등의 간절한 음성이었다.

그 방에 있는 학생들이 영어로 말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있는 나는 아브람스(Abrams)선생님을 옆에 두고 그들이 영어로 기도하는 것을 듣고 깜짝 놀라 한 동안 정신을 잃은 듯 움직이지 못했다. 다시 정신을 가다듬어 눈을 뜬 나는 1899년에 케고온(Kedgaon)에서 물세례를 베풀었던 여인이면서, 나의 아내와 내가 독실한 주님의 종이 되기로 작정한 그때부터 친분있게 지내던 그녀가 눈을 감고 무릎을 굽힌 채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습을 발견하였다. 그녀의 어머니가 쓰는 언어는 마라티(Marathi)였고 그녀는 힌두(Hindustani)사람들의 언어도 조금 구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같이 그녀가 영어로 말하고 그것을 이해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내가 그녀의 독특하면서도 관용적이고 유창한 영어발음을 들었을 때 나는 자신도 모르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을 목격한 것 같은 감동을 받았다. 어떤 이들이 표현하기를 마라티(Marathi)어인들과 여자 어린이들이 영어로 말하였고 다른 사람들은 케다가온(Kedagaon)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다른 언어들도 구사하였다고 한다. 이것은 내가 행설수설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내가 전에 들어 본적이 있으나 이해할 수 없는 외국 말들과 정말 유사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

정말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전에 그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언어인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 나는 왜 하나님이 그 여인들과 여자 어린이들에게 타밀(Tamil), 벵골(Bangail), 투가라(Tugulu), 아니면 또 다른 인도언어를 구사하게 하지 않고 영어를 쓸 수 있게 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다. 하지만, 내가 그것을 조금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유럽과 미국에서 온 가난한 선교사들에게 베푼 자비로운 긍휼로서 성령의 사역과 은사들을 의심하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성령의 능력을 믿지않고 받아들이지 않았음을 그들을 통해 깨닫게 하려 한것 같다 (프로드셈(Frodsham) 1946, 107-108).

그 엄청난 부흥은 크리스찬들과 불신자들이 함께 모여 예수의 보혈안에서 시작된 회개운동으로 전개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과 하나님의 불세례를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으로 연장되어 전국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부흥은 인도 남쪽에 위치한 도네보(Dohnavur)라는 지역에서 타밀(Tamil)주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하던 에이미 카마이클(Amy Carmichael)에까지 전파되었습니다. 성령이 1905년 10월에 그들 위에 강하게 역사하여 설교하는 자나 큰 목소리로 기도하는 자들이 성령의 강권적인 능력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들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에이미 카마이클(Amy Carmichael)은 이 광경을 체험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그것은 정말 놀랍고 무서운 순간이었다. ...

곧, 소년, 소녀, 남자, 여자, 그리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할 것없이 그의 절반이 넘는 성도들이 바닥에 얼굴을 깔고 하나님께 울부짖었다. 그 소리는 마치 나무들 사이에서 불어오는 강한 바람같았다. 혼란하고 이상한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나는 타밀(Tamil)주민들 사이에서 한번도 이런 소리를 들어 본적이 없었다. 물론, 인도 북쪽에 이런 일이 예전에 일어났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우리 타밀(Tamil)사람같이 신경이 무디고 무감각적인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니 전혀 믿어지지 않는 일이다 (듀웰(Duewel) 1995, 230).

마라티(Marathi)부흥이 전개되기 이전에 부흥의 불꽃이 인도 동북쪽에 위치한 아쌈(Assam)을 휘저어 놓았지만 부흥이 확산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 부흥의 불길이 그 효력을 내지 못했습니다. 1905년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카시 힐 (Khasi hill)부족 크리스찬들은 매일저녁 모여 부흥을 위해 18개월 동안 기도로 간절히 주님께 호소했습니다. 그 전에 그들의 웰쉬(Welsh) 장로교 선교사들은 자신들에게 영적인 활력소가 되는 웨일즈(Wales)에서 일어난 부흥운동 소식을 카시 힐 (Khasi hill)부족 크리스찬들에게 들려 주었습니다. 그들의 매일 밤 기도모임은 종종 10시가 넘게 진행되었습니다.

성령세례에 대한 성경말씀이 1906년 3월 4일 일요일에 거기에 모인 성도들의 마음을 깊이 휘저어 놓았습니다. 크리스찬들은 특별한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하여 주님 앞에 눈물의 기도를 드렸고 때로는 마음 속 깊은 곳에서 흘러 넘치는 기쁨으로 그 분을 찬양하였습니다. 부흥은 점차적으로 확산되어- 카시(Khasi)장로교의 목회자들의 강하고 능력있는 말씀선포와 이에 반응한 성도들의 진실한 회개운동으로- 여러 곳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침례교회 선교사들은 또한 브레매프트라(Brahmaputra)강 기슭을 중심으로 영적인 회복을 가져 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907년에 부흥운동은 브레매프트라(Brahmaputra)의 모든 교회들로 퍼져 나갔고 그것은 계속되어 남쪽에 있는 나가 힐스(Naga Hills)부족들과 미조(Mizo)부족을 포함한 남쪽 부족들에게도 성령의 불이 붙여졌습니다. 이로인해 1911년과 1912년에는 부흥을 반대하는 토속종교가 활기를 띠었지만, 쥐를 통한 전염병이 그 지역에 번지고, 또 그들의 음식물을 다 먹어 치우자 그들은 어려운 고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피해 평지로 옮겨 온 피난민들을 본 크리스찬들은 자신들의 음식을 나누어 주며 그들을 잘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토속종교는 없어지고 1913년과 1919년에 엄청난 크리스찬 부흥운동이 인도 북동쪽 힐스(Hills)부족들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 1906

**4월 9일 - 로스앤젤레스(Los Angeles), 아즈사 스트리트(Azusa Street) (윌리엄 시모(William Seymour))**

어느 흑인신성교회 목사님인 윌리엄 시모(William Seymour)는 찰스 파암(Charles Parham)이 가르치는 텍사스(Texas) 휴스톤(Houston)의 단기 신학교에서 신학공부를 하였습니다. 그 당시 그 주에서는 인종차별법으로 인해 흑인들이 사회 각층으로 진출하는 것이 엄하게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가까운 언덕에 앉아 신학교의 열린 출입문을 통해 강의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 전에 찰스 파암(Charles Parham)은 켄사스(Kansas) 토페커(Topeka)에 위치한 어느 신학교에서 여러 과목을 강의했는데, 1901년 1월 1일에는 찰스 파암(Charles Parham)이 에그니스 오즈맨(Agnes Ozman)이라고 불리는 여학생의 머리에 손을 얹고 성령세례를 받을 수 있게 안수기도 했을때 그녀의 입에서 방언이 터져 나왔습니다. 곧 이어, 파암(Parham)과 34명의 절반이 되는 학생들이 방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방언의 은사가 성령세례의 초기적인 증거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초기에 그들은 방언이 선교적인 차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언어적인 은사라고 믿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미국에서 일어난 펜타코

스탈리즘(Pentecostalism)초기에 나타난 사건들입니다.

로스앤젤레스(Los Angeles)에 있는 어느 자그만 신성교회는 윌리엄 시모(William Seymour)가 그 교회에 와서 목사로 시무할 능력이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그를 교회로 초대하여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의 첫 번째 설교는 사도행전 2장 4절에 나오는 성령세례와 방언을 강조하여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녁집회를 인도하고자 교회에 다시 왔을 때, 교회문이 굳게 닫혀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들이 자신을 반기지 않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쫓겨남).

그런 후, 시모(Seymour)는 브레이(Rae)거리에 위치한 보니(Bonnie)의 초라한 오두막에서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그곳은 지금도 현대 펜타코스트(Pentecost)의 획기적인 사건의 장소로 보존되고 있습니다). 4월 9일 화요일에 있었던 성령의 강권적인 집회에서 시모(Seymour)를 포함한 많은 성도들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숫자는 점점 증가하여 급기야는 모인 무리의 무게에 못 이긴 베란다 앞이 부서져서 참석자들이 이동해야 할 상황까지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전에 아프리카 감독의 감리교회로 사용되어 졌던 아즈사 스트리트(Azusa Street) 312 번지의 마구간과 창고가 함께 붙어있는 오래된 2층을 건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사도적인 믿음선교회(The Apostolic Faith Mission)의 지도자인 시모(Seymour)는 그 해 부활절이었던 1906년 4월 14일 주일날에 그 곳에서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흑인과 백인을 모두 합하여 100명 정도가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그 작은 선교회 위에 역사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방언과 예언을 통해 성령세례를 받았습니다. 4일후인 18일 수요일에 로스앤젤레스 타임즈(The Los Angeles Times)는 샌프란시스코(San Francisco) 지진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아즈사 스트리트(Azusa Street)에서 일어나는 불가사의하고 초자연적으로 하는 방언과 열광적인 대소동 사건의 기사를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사는 평범치 않은 과격한 감정의 표현들로 보도되었을 뿐 아니라, 시끄러운 펜타코스탈리즘(Pentecostalism)집회를 비판하는 시각에서 출판되어 크리스찬, 불신자들, 가난한 사람 그리고 부자들의 관심을 갖게 했습니다. 곧, 군중들은 그것을 알아 보고자 건물 안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수백 명의 영혼들이 구원을 위한 성령세례를 받았고 이것은 사도적인 선교활동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영육의 치유와 전도활동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고 복음 전도주의 차원의 해외선교운동 또한 핵심적인 사역이 되었습니다.

보통 세계적인 펜타코스탈주의(Pentecostalism)운동의 흔적을 찾아보면 그 근원은 성령의 불이 전세계로 퍼지기 시작한 아즈사 스트리트(Azusa Street)에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보면, 존 질레이크(John G. Lake)도 아즈사 스트리트(Azusa Street)의 선교회를 방문하였습니다. 1908년 그는 남아프리카(South Africa)에서 펜타코스트(Pentecost)선교회들을 개척하여 5년후 500개의 흑인 교회와 125개의 백인교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그는 워싱턴(Washington)의 스포케인(Spokane)에 치유의 방들을 설립하여 수천 명의 영. 육 환자들이 기도와 의약을 통해 치료받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그 당시 그 도시는 미국에서 가장 건강한 도시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비록, 아즈사 스트리트(Azusa Street)교회가 부흥에서 성령의 은사들을 처음 체험한 교회가 아니었지만, 아즈사 스트리트(Azusa Street)부흥은 전 세계를

감동시켰습니다. 예를들어, 런던(London)의 스코티쉬(Scottish)장로교회의 애드워드 아이빙(Edward Irving)목사는 1825년 영국과 스코틀랜드(Scotland)에서 은사(Chrismata)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1830년이 시작되는 어느날, 글래스고우(Glasgow) 근처의 교구민들이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체험하였습니다. 1831년에는 그의 교회 성도들 사이에 방언과 예언의 은사는 평범한 은사로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1832년에는 그의 그리스도론을 보는 신학적 관점의 변질과 남녀 비 성직자들에게 예언을 할 수 있게 허락하였다는 사실로 런던(London) 장로교단으로부터 더 이상 목회를 못하게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니다. 하지만 그는 나중에 카톨릭 어포스톨릭(Catholic Apostolic)교회를 800명 규모의 큰 교회로 성장시켰습니다. 그리하여 심지어는 그를 따르는 동역자들에게도 아이빙지트스(Irvingites)라는 별명이 붙여 졌습니다. 아이빙(Irving)이 죽은 1843년부터 그가 설립한 교회가 점차적으로 전례예배식 요소들을 받아들였지만 40년이나 더 존속하였습니다.

반면에, 1886년 8월 19일에 가장 오래된 펜타코스트(Pentecost)교단의 교회로 최대 규모인 클레브랜드(Cleveland)의 하나님의 교회(The Church of God)가 테니스시(Tennessee)의 몬로(Monroe)라는 시골에서 크리스찬 연합이라는 가장 작은 단체로 설립되어 “하나님의 교회(The Church of God)로 함께 모든 사업을 동등하게 사무처리 합니다” 라는 표어로 시작하였습니다. 1892년 그들은 두번째 친교모임을 12마일이나 멀리 떨어진 북쪽의 케롤라인(Carolina) 산간 지방에 위치한 케로키(Cherokee)라는 시골에 창설하였습니다. 그곳은 1896년 쉬이어러(Shearer)기숙사의 130명의 크리스찬들이 그들의 요란한 집회 가운데서 방언과 치유의 은사 등 성령의 은사들을 강하게 체험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교회들은 약 10년 동안 반대하는 세력의 맹렬한 탄압과 억압에 교회 건물과 성도들의 집에 불이 나기도 하고 매질을 당하기도 하고 총탄을 맞기도 하고 돌에 맞아 큰 손상을 입기도 하였지만 꾸준히 믿음으로 성장하여 여러 곳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1907년 1월 11일 테니스시(Tennessee)의 클레브랜드(Cleveland)에 그들의 본부를 설립하고 하나님의 교회(The Church of God)라고 정식 명칭을 붙였습니다. 1906년에 아즈사 스트리트(Azusa Street)으로부터 유사한 현상들을 접해 들으면서 그들은 성령세례와 성령의 은사들을 더욱 담대하게 가르쳤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에 대해 전개해 나왔는지 간단히 요약해 보면, 18세기의 영적 대각성운동은 많은 부흥과 성장하는 교회들을 낳았고 감리교회의 탄생을 가져왔습니다. 복음전도적인 부흥은 19세기의 신성교회들을 포함한 많은 교회운동들을 유도해 냈습니다. 이 교회운동들은 펜타코스탈리즘(Pentecostalism)교회들이 놀랄만하게 발전할 수 있게 계기를 마련해 주었고, 또한 20세기의 카리스매틱(Charismatic)운동의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 1907

### 1월 7일 - 한국, 평양(Pyongyang)

1907년 장로교 선교사들로부터 웨일즈(Wales)에서 일어난 부흥소식과 인도 아삼(Assam)에서 웰쉬(Welsh)장로교 사역자들 사이에서 일어난 유사한

부흥운동을 접해듣고, 한국도 이와같이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기를 바라며 간절히 기도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 기원은 1907년 1월에 전국교회 대표들이 그 당시 수도였던 평양(Pyongyang)에서 10일 동안 함께 모여 새해 성경공부를 하는 기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기도의 불이 붙여졌습니다. 그 모임들은 밤낮 구분없이 진행되었고 많은 영혼들이 몸을 흔드는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세상적인 죄를 뉘우쳤습니다.

그러던 1월 7일 월요일 밤에 참석한 많은 교회대표들이 기도하기를 원해서 그 집회를 인도하는 지도자들은 참석자 전원인 1500명을 모두 불러 큰 목소리로 함께 기도의 불을 붙였습니다. 이 순간 강한 성령의 역사에 감동된 기도회는 각 개인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죄를 회개하는 것을 시작으로 진실한 마음의 눈물이 범벅이 되어 바닥에 앞드려져 주님께 완전히 굴복하는 단계로 연속되었습니다.

이것을 지켜보던 이들은 매우 놀랐습니다. 또, 새해 성경공부에 참석한 전국교회 대표들은 자신들이 체험한 기도의 영혼을 가슴에 간직한 채, 각 지교회로 돌아갔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전국의 교회들이 부흥하는데 핵심적인 영향을 미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동시에 함께하는 기도방식(통성기도)은 후에 한국교회의 주목할 만한 특징이 되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죄를 뉘우친다든가, 회개를 한다든가, 아니면 영적인 회복을 하는 자리에서는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2개월 만에 2천 명이 죄를 뉘우쳤고 1907년 중반쯤 되어서는 3만 명의 불신자들이 주님을 영접하는 크리스찬들이 되었습니다.

일본제국과 러시아 그리고 중국 공산주의의 세력에 주권을 상실하고 박해를 받던 상황에서 수천 명의 크리스찬들이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 어려운 국가위기 가운데서도 전국교회들은 계속 불타는 기도모임으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러시아의 침략에 앞서 수천 명의 평양 사람들이 매일 새벽 5시에 모였습니다. 때로는 만 명의 크리스찬들이 새벽기도회를 위해 한자리에 모이기도 하였습니다.

이 새벽기도회 모임은 철야기도회와 함께 한국교회에 매우 보편화 되었습니다. 요즈음에도 매일 아침 새벽 5시쯤 되면 한국 전체에 백만 이상되는 성도들이 각 교회에 모여 새벽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금식과 기도는 한국교회의 평범한 믿음생활의 일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천 명의 성도들이 찾아가 기도와 금식을 하는 “기도산”에는 전국의 교회들이 100개가 넘는 기도원들을 산중턱에 지어놓고 믿음의 훈련소로 운영하고 있는 곳입니다. 지금도 금식을 하며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한국인들 사이에는 치유의 기적과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현재까지 10만명 이상되는 해외 선교사들을 아시아(Asia)의 많은 나라들로 파송하였고, 그것이 하나님이 한국교회에 주신 지상사명으로 받아들이고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그들과 계속 교체하면서 주님의 나라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큰 장로교회와 감리교회가 한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데이빗이라 불리는 조 용기(David Yonggi Cho)목사는 그가 서울(Seoul)에서 담임목사로 섬기고 있는 80만 규모(약 2만 5천 구역)의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통해 엄청난 교회성장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영광스럽게 체험하였습니다. 또 주중에는 하루에도 3천 명이 넘는 성도들이, 주말에는 5천 명이 넘는 성도들이 그들의 기도원이 위치한 산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1909**

**7월 4일 - 칠레(Chile), 발파라이소(Valparaiso) (윌리스 호버(Willis Hoover))**

1905년 인도(India)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있을 때, 맥티(Mukti:구원) 선교회를 섬기던 민니 아브람스(Minnie Abrams)는 1907년에 인도(India)부흥 소식을 남아메리카 칠레(Chile)에 있는 그녀의 친구이며 감리교 선교사들인 윌리스(Willis)와 메리호버(Mary Hoover)에게 전했습니다. 그들은 칠레(Chile)에도 그런 유사한 부흥이 일어기를 소원하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2월부터는 200명의 성도들이 토요일 저녁마다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린 마음으로 죄를 뉘우치고 잘못된 것을 회복하였습니다. 그것은 1909년 7월 4일 토요일에 일어난 부흥을 준비하는 근본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윌리스 호버(Willis Hoover)는 그 날 밤을 이렇게 저술했습니다:

토요일 저녁은 밤새도록 기도만 하는 시간이었다. 그 가운데서 성가대원인 세 명의 자매를 포함한 네 명의 자존심이 강한 아가씨들이 하나님의 강한 능력에 힘입어 땅바닥에 엎드려 졌다. 그 중 바닥에 한 동안 누워있던 한 자매는 자리에서 일어서더니 매우 놀라운 성령의 계시를 받고 훈계의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주님이 곧 임하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말씀하옵소서”. 그렇게 말한 근본취지는 알 수 없었다.

다음날 10시에 주일학교에서 정체불명의 어떤 것이 그 사람들 위에서 맴돌고 있는 것 같았다. 어떤이가 거센 물이 흐르는 소리로 개회기도를 마친 후에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자 모두들 궁금해 했다... 그 순간부터 그곳 분위기는 성령의 강한 임재로 사람들이 바닥에 엎드려져 다른 언어들로 방언을 하기 시작하거나 성령에 이끌려 주님을 찬양하는 등 정상적인 상태로는 불가능한 것들을 체험하게 되었다. 이 특별한 사건으로 12명의 형제 자매 중 하나인 어느 젊은 아가씨는 기도실이 있는 다른 모퉁이 부분에서 눈을 감은 채 조용히 바닥에 누워 있었다. 갑자기 그들은 통일된 목소리로 잘 알려진 찬양의 곡조를 알 수 없는 방언으로 부르기 시작했다. 모든 이가 같은 가사를 불렀다. 한 곡 아니면 두 곡을 부른 뒤 그들은 조용해 졌다; 그러더니 갑자기 다시 다른 곡조를 한 두 구절 부르고 다시 조용해 졌다. 이렇게 진행된 것은 그들이 10가지 찬양곡을 마칠 때까지 마치 보이지 않는 소년소녀성가대원들의 찬양을 듣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프로드시암(Frodsham) 1946, 177 - 178).

2개월 만에 300명의 성도 수가 천 명으로 급성장하였고 이 부흥은 다른 도시로 전파되었습니다. 그를 반대하는 세력은 윌리스 호버(Willis Hoover)가 감리교 교단을 떠나게 나쁜 소문을 내면서 고소운동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펜타코스탈 감리교회(Pentecostal Methodist Church)를 창설하여 현재는 칠레(Chile)에서 60만 이상되는 성도들은 섬기고 있습니다.

**1921**

**3월 7일 - 영국, 로웨스로프트(Lowestoft) (더글라스 브라운(Douglas Brown))**

침례교회의 더글라스 브라운(Douglas Brown)목사는 런던(London)남쪽에 위치한 그의 교회에서 매 주일 주님께 회심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1921년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하여 18개월이 지난 후에는 1,700번 이상의 집회를 가졌고

부흥이 그의 복음전도적인 사역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주님은 그가 다시 선교사역을 떠날 수 있게 영적인 계시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비록 교회를 떠날 마음이 내키지 않았지만 그는 최종적으로 주님께 순종하였습니다. 그는 그것을 이렇게 묘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주일 저녁예배가 잘 진행되어 가는 중에 나를 사로 잡았고 내가 설교하는 동안에 나의 마음을 깨뜨려 버렸다. 나는 교회에 있는 나의 사무실로 급히 들어가 문을 잠그고 화로 앞에 있는 양탄자 위에 나의 몸을 주님으로부터 깨진 마음과 함께 던졌다. 왜, 나는 모를까? 나의 교회는 가득 채워졌다. 나는 나의 성도들을 사랑했고, 그들이 나를 사랑하고 있음을 믿었다. 내가 그렇게 하라고 인도하지도 않았는데 그들은 그렇게 했다. 나는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행복했다. 50년 동안의 목회생활을 통해 회심하는 자가 없는 주일은 한번도 없었다. 그 날밤, 나는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공부를 시작했다. ... 저녁을 먹지도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손을 자랑스러운 목사 위에 놓고 내가 너무 멀리 있다고 말하면서 몇 가지 고려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주님은 내가 번번히 회피하며 거절하던 일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기를 원하셨다. 나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11월이 허둥지둥 지나갔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독백); 나는 하나님께서 옳았고 내가 잘못 되었음을 깨달았다. 나는 그것이 나에게 무엇을 뜻하는지 알았지만 그 값을 치를 준비를 하지 않았다. ... 1월 한달 내내 하나님과 나는 보이지 않는 씨름을 하였다. 그 사이에는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이 있었고, 나는 그런 주님께 감사하다! ...

1921년 2월, 4개월간의 씨름이 끝나고 결국 내 사역의 전환기를 맞이 하였다. 오, 인내심이 정말 풍부하신 주님! 토요일 밤에 나는 목회사직서를 써내려 갔고 그것은 눈물로 얼룩져 갔다. 비록 교회를 사랑 했지만, 만약 내가 거룩하지 못하면 정직해야 한다고 느꼈다; 나는 하나님과 씨름을 계속하는 동안 설교를 더 이상 할 수 없음을 느꼈다. 그 날밤, 나는 사직서를 비망록 위에 두고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아침이 된지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방문을 열고 나갔을 때 나는 강아지를 살짝 치면서 넘어졌다. 만약 내가 강아지를 위해 한번도 주님께 감사 드리지 않았다면 아마도 어젯밤 그렇게 했을 것이다. 내가 서재의 책상 앞에서 무릎 꿇었을 때 나의 강아지는 주인의 얼굴을 핥았다; 강아지는 내가 아픈 줄 알고 있었다;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빈둥거리는 동안 나는 스스로가 의지할 곳 없는 외로운 자로 느껴졌다.

그러던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 나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불변하는 사랑의 손 안에서 영원히 거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모든 능력과 기쁨과 축복이 큰 홍수같이 나를 감싸는 것 같았다. 어떻게 그것이 왔을까? 나는 그것을 표현 할 수 없었다. 아마 내가 천국에 갈 때쯤이면 이야기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모든 느낌과 감정들을 표현 할 수 있는 능력이 존재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체험은 단지 여기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었다. 시간은 새벽 2시쯤 되었다. 주님은 나 같은 한 사람을 위해 4개월을 기다렸다; 그래서 나는 기도했다, “주여, 저는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제가 선교사역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주님을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나는 어떤 천사의 날개가 바스락거리는 소리도 듣지 않았다. 나는 또한 번쩍이는 어떤 빛도 보지 않았다 (그리핀(Griffin) 1992, 17-18).

휴그 퍼거슨(Hugh Ferguson) 침례교 목사는 3월 7일부터 3월 11일까지- 동앵글리아(The East Anglia)해안의 로웨스로프트(Lowestoft)에 위치한 런던길(London Road) 침례교회에- 더글라스 브라운(Douglas Brown)목사를 초대하여 한 선교회에서 말씀을 전해 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교구전도자 더글라스 브라운(Douglas Brown)목사는 기차로 도착해 여행피로가 완전히 풀리지 않았지만 월요일 밤 그리고 화요일 아침, 점심, 저녁 집회들을 인도해 나갔습니다. 수요일 밤에는 궁금한 질문을 가지고 찾아온 사람들로 인근 학교 교실이 상담과 기도로 매우 붐볐습니다. 그 날밤 장년들을 따라 50명~60명이나 되는 젊은 사람들이 죄를 뉘우쳤습니다. 매일 밤 예배가 마친 뒤 많은 사람들이 상

담실에 가득 찼습니다. 그런 선교활동은 예측하지 못할 정도로 확장되어 나갔습니다. 더글라스 브라운(Douglas Brown)목사는 주일을 위해 그의 교회로 돌아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주 월요일에는 다시 선교활동을 계속 하였습니다. 3월 말쯤에는 700명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침례교회에서 천 100명이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는 규모의 성 요한 영국국교회(St. John's Anglican Church)로 장소를 옮겨야 했습니다.

부흥이 시작된 것입니다. 비록 많은 집회에서 더글라스 브라운(Douglas Brown)목사가 주 설교가였지만 많은 다른 교단목사님들도 함께 연합적으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부흥 집회들은 입스위치(Ipswich), 노위치(Norwich), 캠브리지(Cambridge), 등을 포함하여 야모스(Yarmouth) 어업센터까지 널리 확산되었습니다. 겨울에도 야모스(Yarmouth)까지 어업을 나가는 스코티쉬(Scottish) 어부들은 강한 감명을 받았고, 여름에 이 부흥의 불씨를 스코티쉬(Scottish) 항구도시들과 각 마을들로 들고 들어 갔습니다. 잭 트롭(Jock Truop)이라는 스코티쉬(Scottish)복음전도자는 동앵글리아(The East Anglia)에 부흥의 불이 크게 타오르고 있는 동안에 그곳을 방문하였고, 그 후 스코틀랜드(Scotland)에서 능력있는 목회를 하였습니다.

같은 시점인 1921년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아이리쉬(Irish)복음 전도자인 윌리엄 페터슨(William Patteson)의 목회를 통해 아일랜드(Ireland)의 울스터(Ulster)지방에서 강하게 역사하였습니다. 이것은 또한 북아일랜드(Northern Ireland)가 긴장과 유혈의 혈전 끝에 자체의회 창단을 승인 받은 시점과도 유사합니다. 에드윈 오라(Edwin Orr)는 윌리엄 페터슨 니콜슨(William Patteson Nicholson)의 목회와 관계없이 새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니콜슨(Nicholson)선교활동은 복음주의적 의도의 선교활동을 전개하였다: 12만 409명이 신앙 상담실에서 상담을 받았다. 많은 교회들이 함께 합류하였고, 100~200명 되는 숫자의 사람들이 기도회와 성경공부모임 그리고 선교집회를 운영하면서 모든 모임들이 날로 강하게 확장되어 갔고, 목회 후보생들도 두 배로 늘어 났다 (그리핀(Griffin) 1992, 87).

## 1936

### 6월 24일 - 르완다(Rwanda), 가히니(Gahini) (동부 아프리카 부흥(East Africa Revival))

아프리카는 1914년 벨기에(Belgian)의 씨 티 스튜드(C.T. Studd)선교사의 사역을 통해 콩고(Congo)에서의 성령의 기름부음을 비롯해 많은 부흥사례들을 찾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기록에 의하면 “모든 지역이 마치 전류가 흘러 충전된 것 같았다. 남자들이 바닥에 엎드러지고 높이 뛰며 웃고 울고 찬양하고 죄를 뉘우치고 어떤 이들은 무섭게 몸을 떨며 기도했다” 라고 전합니다. “내가 기도로 집회를 인도할때 성령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임하여 집회에 참석한 성도들은 눈물의 바다에 빠져 들었고, 나의 온몸은 그 분의 거룩한 기름부음으로 전율되기 시작했다. 우리는 이 엄청난 것을 목격하였고 완전히 성령 충만함에 도취되었다.” (세계 복음전도 집회 1954, 12-15).

이 같은 진술은 하나님의 성령이 온 아프리카에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세기 초창기에 약10%의 아프리카 인구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다. 이러한 인구밀도는 사하라(Sahara)사막 남쪽으로부터 해서 45~50% 가까이 되었습니다. 아프리카 크리스찬의 인구는 아프리카 전체의 절반이나 되는 4억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성장은 1936년에 일어난 동부 아프리카부흥(The East Africa Revival)과 같이 널리 퍼진 부흥의 불씨들을 통해서 일어난 결과로 볼 수 있고, 또한 버섯같이 번져나가는 독립교회(Independent Church)들의 증가로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동부와 중앙 아프리카 국가인 르완다(Rwanda), 브룬디(Burundi), 그리고 우간다(Uganda)를 중심으로 사역하는 교회선교사회 소속인 영국국교회 선교사들은 케스윅(Keswick)의 중생의 가르침, 성령충만 그리고 승리하는 삶을 그들의 선교목회의 중점으로 삼았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아프리카 동부쪽 부흥을 영적인 말씀으로 주도하였고, 1930대에 시작한 이 부흥운동을 50년이상 계속 이어 나갔습니다.

르완다(Rwanda)선교회는 1920년 초반에 설립이 되어 1920년대 후반과 1930년대 초반에 들어 각 지역에서 부흥을 체험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대대적으로 기도회 동참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936년에는 수천 명이 기도회에 합류하였고, 그 가운데 감격할 만한 부흥이 1936년 6월 24일 수요일에 르완다(Rwanda)의 가히니(Gahini)에서 일어났습니다;

마치 그곳은 성령이 보이지 않은 손으로 병원 직원들의 손을 붙잡고 병실의 환자들을 치유하는 것 같았다. 그들은 기도하고 찬양하였고, 어떤 이들은 죄의 엄청난 누우침에 스스로 땅바닥에서 통곡하였다. 부흥은 여자학교를 휩쓸어 버렸고 유사한 현상들이 다른 5개 선교센터에서 벌어졌다. 어디를 가든지 신비로운 성령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하고 있었다 (듀웰(Duewel) 1995, 300).

이 부흥은 계속 확산되어 어느 신학교의 50명의 신학생들이 성령의 불에 사로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 해 중반쯤에 있던 방학기간에 그들은 부흥의 열정을 간직한 채 두 세 사람씩 팀을 이루어 각 마을을 다니며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아프리카 르완다(Rwanda)선교회는 1942년 2만 명의 불신자들을 회심하게 인도하였고 700개의 예배모임들을 인도하였으며 만 4천 명의 봉사자들을 교육시켰고 5명의 목사님들을 배출하였습니다.

1936년 6월 르완다(Rwanda)에서 시작된 그 유명한 동부 아프리카 부흥운동(The East Africa Revival)은 이웃 나라인 브룬디(Burundi), 우간다(Uganda), 그리고 콩고(Congo)를 포함한 많은 주변 국가들로 급속적으로 전파되었습니다. 성령은 곳곳의 선교학교에서 시작하여 그 지역 교회들 사이에 퍼져나갔고, 심지어는 깊은 회개와 삶의 변화를 통해 사회전체를 사로 잡았습니다. 이로인해, 1936년 9월에 영국국교회(Anglican Church)의 부주교인 아서 핏트-핏트스(Arthur Pitt-Pitts)는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나는 이 부흥이 진행된 모든 곳에 있었고 그것을 체험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같은 이야기를 하였다. 성령의 불이 6월 중순 무렵까지 모든 사람들 삶 속에 내려왔고, 6월의 마지막 주에 그것은 마치 아프리카 초원에서 바람을 등지고 불같이 활활 타는 불꽃이 되어 어떤 방법으로도 멈출 수 없는 뜨거운 부흥이 되었다 (오스본(Osborn) 1991, 21).

동부 아프리카 부흥(The East Africa Revival)운동은 그 후 40~50년 동안 계속되었고, 아프리카 크리스찬들에게 열성적인 거룩함을 위한 새로운 결심을 가져다 주는데 영적인 활력소를 심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영적인 운동은

사탄의 주 세력인 토속 종교들과 대면하게 되었고, 그들의 공포적인 대학살에 대응해 교회들도 준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결과적으로 그것은 전쟁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